"KAIST 총장 퇴진 거부하나" 의원 질문에 서남표 "그렇게 봐도 된다"

"스스로 죽는 나약함은 이겨다오" 이재규 KAIST 교수 자작시

사랑하는 제자들아

죽을 각오로 공부하되
스스로 죽는 나약함은 이겨다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 사랑 때문에 죽고 싶던 마음조차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니.

세상이 모두
너를 사랑하지는 않을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
그 얼굴이 있어 네 입가에 미소 짓기를.
(중략)

참 교육은 정제된 지식을 배우는 것 만큼
네 뜻과 상관없이 다가온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도 포함한단다.

수업에서 머리로 배워라.
그리고 삶에서는 가슴으로 배워라.
오늘 하루가 네 배움터이다.

네 주변에 너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혹 아무도 없거든 내게 오너라.

나를 본 적 없어도 네가 내 제자이기에
운명적으로 너를 이미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KAIST 경영대 이재규(60·사진) 교수가 12일 전 학생에게 자작시를 e-메일로 보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KAIST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교수는 "더 이상 목숨을 끊는 학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벽에 시를 썼다"고 말했다. 2002년 등단한 이 교수는 시집 『너는 나의 시인이라는』을 펴낸 바 있다.

서남표 KAIST총장이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수 건으로 눈을 닦고 있다. 김형수 기자

"항명 발언, 김태효 비서관이 한 게 맞는가 군 안 다녀온 사람이 왜 군 개혁 얘기하나"

유승민 의원

국방위 '국방개혁 307' 질타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이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일방적 일 처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6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3월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흘 만에 바로 내용이 발표됐다"며 "국회의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결론 맺어 놓고 따라오라고 하니 굉장히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현재는 6월까지 개혁안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장성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획기적 변화가 군에 흔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정부 내에서 국방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1·2·3단계를 만들어 단계별로 국방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아직 계획안은 가이드라인이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게 아니다"며 "6월까지 국회와 예비역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질의에선 '항명 발언'으로 국방개혁 의

김관진 "누가 그런 말 했나 몰라"
대장급 합참차장 자리 신설

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청와대 일부 참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동참 안 하면 항명으로 보고 옷 벗기겠다고 말한 사람이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맞느냐"며 "군대도 안 다녀온 대외전략비서관이 왜 군개혁을 얘기하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자 유 의원은 "그러니까 옷 벗겨도 싸다"고 탄식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윤영범 장군인데, 왜 그 사람(김태효 비서관)이 군개혁 세미나에 나가고 브리핑도 하고 그러느냐"며 "윤 장군이 그 사람 부하냐"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날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합참의장(대장)의 업무를 보좌할 대장 계급의 합참차장을 신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대장인 1차장과 중장인 2차장이 의장을 보좌하는 체제로 개편된다. 합참차장은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계획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합참차장은 2008년부터 해·공군 중장이 교대로 맡고 있다. 대장급 합참차장의 신설 방침에 따라 장성수를 줄이려는 국방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용수·남궁욱 기자
nkys@joongang.co.kr

국회 교과위 출석한 서남표 총장

➡ 1면 '서남표'에서 이어집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영어로만 교육하는 게 최고인가.

▶서 총장=다 영어로 한 것은 아니다. 체육 이런 것은 영어로 안 한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사퇴할 생각은 없나.

▶서 총장=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하겠다.

▶안민석 의원=퇴진을 거부하나.

▶서 총장=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봐도 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사퇴 안 하는 이유는.

▶서 총장=일 시작한 걸 어느 정도 마치고 그만두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느니, 이런 정치적 접근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하면) 학점이 어떻게 되든 수업료 안 내나.

▶서 총장=옛날 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날 교과위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서남표 총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5일 서 총장이 '미국 명문대는 자살률이 더 높다'는 발언을 했다. 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나.

▶서 총장=제가 잘못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영어로 전면 강의하고 징벌적 수업료 제도를 도입하면 영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어나리란 것을 아나.

▶서 총장=알고 있다.

▶권 의원=그런 아이들을 위해 사후 대책은 취했나. 상담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나.

▶서 총장=상담센터도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병원도 세웠다.

▶권 의원=거짓말이다. KAIST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대봐라.

▶서 총장=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권 의원=(내가 해봤더니) 결번으로 나온다. 바뀐 지가 언제인데 결번으로 나오나. 예산도 2007년까지만 편성됐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거다.

권 의원은 "서 총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 데 대해 "자리에 너무 연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자세론 사태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말도 했다.

정두언 "재임 중 5명의 생명 떠났는데 자리 지키는 건 사람 도리 아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총장님은 그 정책이 옳았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총장 재임 중에 5명이나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경쟁 입찰한 기업체로부터 기부금 58억원을 받았다.

▶서 총장=제가 책임을 지겠지만 전에 있던 부총장이 자한테 보고한 거를 받아들인 거다.

김영진 "영어로만 교육, 최고인가" 서 총장 "체육 과목은 영어로 안 해"

▶유 의원=기부금 실적에 매달려서 무리하게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닌가.

▶서 총장=저희는 그런 것(위법)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서 총장이 거취 문제나 학사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론 잘못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의원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학생들이 총장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국회에서 대화를 해도 느낌이 없다. 총장은 자기 입장만 설명한다.

▶서 총장=제 잘못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서 총장이 메모를 보자) 읽지 말고 총장 의견을 말해 달라.

▶서 총장=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제자들의 죽음에 애도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총장이 ('근조' 리본도 달지 않고) 대한민국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국회에서 이 정도로 하면 한국적 정서로는 '일을 수습하고 난 다음 사퇴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 임기를 마치고 싶으신 모양이다.

▶서 총장=두고 봐야죠.

서 총장은 자신의 개혁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총장이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때 극찬을 받다 지금 매도를 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서 총장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서 총장은 "저는 정말 학생들을 사랑한다. 자꾸 '경쟁' '징벌'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정신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 총장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 중 옷 못 만난 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학교에서 보직하는 분들이 제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안 갔다. 부모님들이 안정된 다음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그것이야말로 총장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민주당 의원 44명, 유시민 한 명에게 당했다

김해을 야당 단일후보 참여당 이봉수

이봉수 후보

12일 오전 8시50분 김해시 장유면 장유문화센터로 향하던 국민참여당(참여당) 이봉수 후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승리를 알리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전화였고, 이 후보의 표정은 환해졌다. 이후 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전화를 걸어 "단일화에 응해준 민주당·민노당 후보들과 협력해 선거를 잘 치러 달라"고 격려했다.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의 민주당 당사는 조용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여론조사)에서 0.9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유시민 대표가 이번에도 민주당에 이겼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와 민주당 곽진업 후보 간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경선에서 이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누가 얼마의 지지율을 얻었는지 발표되진 않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3.5%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론조사(10, 11일)를 하루 앞둔 9일 김해을 지역엔 민주당 의원 86명 중 절반이 넘는 44명이 출동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돌아다니며 김해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오면 꼭 참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44명은 지난달 24일부터 김해에 상주하며 이봉수 후보를 지원한 유 대표 한 명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유 대표를 향해 '단일화 기술자'란 말까지 나온다. 이번 경선 결과로 유 대표는 '노무현의

민주당 의원 절반 김해 내려갔지만
'100% 여론조사' 방식에 결국 굴복
경기지사 경선 때 이어 또 승리
유시민 '단일화 기술자' 재확인
"알박기 정치는 노무현 길과 달라"
김진표 민주당 의원 우회 비판

적통' 계승 경쟁에서 민주당에 이겼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됐다.

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에게 유리한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걸 관철하기 위해 유 대표는 민주당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썼다. 단일화 방식으로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현장투표)을 주장하자 유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카드를 내놓고 버텼다. 이 과정에서 유 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연탄가스 같다" "폭탄방 정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1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대창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 를 한다"는 야유를 받았으나 꿈쩍도 안 했다. 유 대표의 버티기로 협상이 결렬되고,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야권 분열의 반사이득을 얻는 형국이 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섰다. 문 이사장이 유 대표의 양보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태도가 완강하자 민주당 곽 후보를 설득해 참여당의 100%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김해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참여당 관계자 수백 명에게 지침을 내렸다. "여론조사 전화가 올 경우에 대비해 집 전화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놓는 '전화 착신'을 하도록 권하자"는 내용이었다.

유 대표는 이런 짐요함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의 단일화 경선에 이어 또 이겼다. 그런 그를 겨냥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보상을 받지 못했네요. 역시 정치는 떼쓰고 볼 일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해을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긴장하고 있다. 야권 단일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맞붙는 걸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뒤지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봉수 후보를 김해의 민주당 조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느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2일 "이봉수 후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유 대표의) '알박기 정치'로 작은 전투에선 이길지 몰라도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통 큰 정치가 노무현의 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표출한 것이다. 김해을 선거 결과는 향후 야권의 대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유 대표의 참여당은 원내(국회)에 진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 대표의 대선 도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한다면 유 대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시작된 4·2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13일까지 진행된다.

채병건·김경진 기자 mfemc@joongang.co.kr